

301장 - 지금까지 지내온 것

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
 1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
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
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
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
 2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
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
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
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
 3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잡네
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
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

384장 - 나의 갈 길 다 가도록

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
 1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
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
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(×2)
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
 2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
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
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(×2)
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
 3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
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
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(×2) 아멘

1월 26일(화) 기도 담당 : 홍광진 집사

2021년 1월 25일(월)

이른아침예배

인도 : 장지훈 목사

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배를 여는말 | 인도자 |
| 신앙고백 | 사도신경 |
| 찬송 | 301장 |
| 기도 | 김홍수 집사 |
| 성경봉독 | 디모데후서 4장 6-8절 |
| 설교 | 『하나님의 절실함 안에 살아가는 자』 |
| 기도 |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|
| 찬송 | 384장 |
| 축도 | 설교자 |

📖 오늘의 말씀 <디모데후서 4:6~8>

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
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
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

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

2021년 1월 25일(월)

사랑과 은혜의 하나님!

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, 이 한 날과 우리 인생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,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을 전제로 기쁘게 받으시고, 격려하시고 칭찬해주시며 또한 의의 면류관도 준비해놓으셨으니,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 날,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달리고 완주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

교회의 머리되신 주님!

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, 우리 새문안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영원토록 친히 동행 하셔서 이 땅에서의 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,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흡족해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. 당회와 모든 교역자,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고, 우리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이 기간에 허락하신 <새문안 성경일독>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, 달고 오묘하신 주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.

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!

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셨고, 지금까지 인도해내셨음을 믿습니다. 또한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 구석구석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, 그 하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,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혜롭게 허락하신 길을 감당해내는 이 나라,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.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이 나라를 붙잡히 여겨주시고,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셔서, 말기신 사명을 겸손과 성실로 감당하여 모든 불안과 난관을 지혜롭게 해소하고 극복하는 이 나라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.

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